

# 철학의 길, 그리고 우리의 길\*

## —철학정신과 시대정신의 교차점에서—

최 성 환\*\*

**주제분류** 현대철학

**주 요 어** 철학정신, 시대정신, 강단철학, 교양, 철학문화

**요 약 문**

이 글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철학과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려는 목적으로 가진다.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새로운 학문문화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학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학문과 대학의 과제와 존재이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하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철학과와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찰적 입장에서 필요한 단기적·장기적 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지금 철학의 변신을 요구하는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이제 철학과의 내적·외적 역량과 이론적·실천적 노력 모두를 발휘하여 여전히 철학이 인간의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갈 때 비로소 사회와 인간의 삶에 봉사(기여)할 수 있는,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철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통념의 상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공통감각(sensus communis)에 기초한 대학문화를 새롭게 형성하고, 추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철학적 근본주의’(ein philosophischer Radikalismus)를 제안한다.

\* 이 글은 중앙대학교 철학과 창설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시대정신과 철학정신-강단철학의 안과 밖>>(2014/11)에서 발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 중앙대학교 철학과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강단철학은 사회에서 부는 ‘인문학의 열풍’과, 대학에 닥친 ‘구조조정의 한파’라는 극단적인 온도차이 속에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바우만(Z. Bauman)의 책 제목처럼 우리에게 지금은 유동적인 시간이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가기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sup>1)</sup>에 급급한 현실이다.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더불어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철학은 자신의 진로를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실존적 동요는 새로운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고통이 인간을 지혜롭게 한다’(pathei mathos)<sup>2)</sup>는 말도 있다. 진정한 철학은 ‘회심’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회심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고통스러운 단절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철학은 이미 주어진 것의 통일성을 깨고, 단절을 그리며, 가치를 바꾼다.”<sup>3)</sup> 그러므로 새로운 상황은 우리에게 철학함의 단초가 되고, 이 단초는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한 성찰로 인도한다.

이 글은 중앙대학교 철학과 창과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철학과가 직면하고 있는 ‘일반적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길을 모색해보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이 글이 단지 ‘기념’을 위한 형식적 의미에서 촉발된 것은 아니다. 철학과 시대의 관계는 철학이 항상

- 
- 1) 이 책은 2010년 『모두스 비벤디』(한상석 옮김, 후마니타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 2) 이 표현은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아가멤논』에 처음 등장한다고 한다. “그분께서는 인간들을 지혜로 이끄시되 고뇌를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세우신 이 법칙 언제나 유효하도다.”(176-178)
  - 3) 이브 카뎡, 『철학에 입문하기』(박선주 옮김), 동문선, 2003, 23쪽.

동반해야 하는 고유한 주제이다. 철학(정신)은 ‘항상’ 시대(정신)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드러낸다.

## 2. 시대정신과 철학정신

오늘날 세상은 니체(F. Nietzsche)의 표현을 빌면 ‘삶에 봉사하는’ 철학, 그것도 학자나 교수의 삶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철학을 요구한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철학에게 우리는 없고 우리에게 철학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비록 강단철학이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양적으로 엄청난 이론적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부하겠지만, 세상의 눈에는 이 성과가 전혀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불임(不妊)에 불과한 것으로 비친다. 이것은, 이미 100년 전에 짐멜(G. Simmel)이 비판했던 것처럼, (현실적 유의미성과는 무관하게) ‘학자 카스트의 결탁’(eine Verschwörung der Gelehrtenkaste)에 따른 동종교배(Inzucht)의 산물이기 때문이다.<sup>4)</sup>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수 백 명의 철학교수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반면, 한 대중적 철학강사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한 교수의 경우 책도 잘 팔리고 강연도 인기리에 방영되는데 한국의 교수들은 비싼 등록금만 축내는 ‘철밥통’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다.<sup>5)</sup> 일반적으로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되는 필로소피아(philosophia)는 지금 분명 ‘관조적 삶’

4) G. 짐멜, 게오르크 짐멜의 문화이론(김덕영·배정희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52쪽.

5) 물론 반대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가다머(H.-G. Gadamer)의 『고통: 의학적·철학적·치유적 관점에서 본 고통』을 접한 사람은 드물지만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베스트셀러이다. 당연히 철학의 입장에서 고통이 청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일반의 문제이다.

(bios theoretikos)에만 머물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sup>6)</sup> 이 요구가 매우 일방적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거나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등의 ‘치유효과’를 증언하고 있다. 또한 언론과 기업 등에서는 앞 다투어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면서 창의적·융합적 인재양성의 가능성을 포함한 ‘생산효과’를 선전하고 있다. ‘실천적 삶’(bios praktikos)에 대한 요구와 함께 소위 ‘상아탑’ 속에 군림하고 있는 학자카스트에 대한 ‘대중의 반역’(叛逆)<sup>7)</sup>이 현실화 된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안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부응하여 융통성 있게 살아야 한다. 강단 철학은 이러한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제대로 설명하는 새로운 표현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sup>8)</sup> 오늘날 사회는,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이 근대화가 빚어낸 상처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위상과 주장을 규범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강요하려는(Kompensationstheorem) ‘보수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동참하기를 강권하고 있다.<sup>9)</sup>

그런데 시대와 철학의 관계는 양면적이다. 한 공동체의 발전을 주도하는 이념이 시대정신으로 요구되지만, 만약 시대정신이 공동체의

- 
- 6) 플라톤, 『향연-사랑에 관하여』(박희영 옮김), 옮김이 서문, 문학과 지성사, 2003, 13쪽. 박희영은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철학을 “인간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혹은 앎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한다.
- 7) 오르테카 이 가세트, 『대중의 반역』(사회사상연구회 옮김), 한마음사, 1995, 66쪽 아래 참조.
- 8) 페르디난트 펠만, 『행복의 철학사』(최성환 옮김), 시와 진실, 2012, 182쪽 참조.
- 9) H. Schnädelbach, Kritik der Kompensationstheorie, in: *Kursbuch 91, Wozu noch Geisteswissenschaften?*, Berlin, 1988, 38쪽.

발전을 저해하는 억압기제로 작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며 비판적 정신을 저해한다. 따라서 시대와 철학의 이상적 관계는 일종의 긴장 관계라 할 수 있다. 사르트르(J. -P. Sartre)는 지식인을 “자기 자신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실천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와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을 깨달은 사람”<sup>10)</sup>이라고 정의한다. 지식인처럼 철학도 ‘중심성’과 ‘탈중심성’ 사이의 끊임없는 운동 속에서 사회를 건강하게 선도할 수 있는 이념들을 제시해야만 한다. 철학에게는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외면해서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sup>11)</sup>

### 3. 철학의 현실과 과제

거칠게 표현하면 철학은 인간의 인식·실천·상징적 행위 능력에 기초한 ‘인간이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정치비판’, 자연과 우주의 질서, 예술과 종교의 영역을 포괄하는 ‘세계해명’이라는 고유한 과제를 가진다. 이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철학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인생관, 사회적 의무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철학의 역사는 반성과 성찰의 힘과 노력으로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외부의 비판을 거부하는 집단들에게 “안락한 자기만족 상태를 해치는 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철학적 전통은 비판적 자기반

10) 장 폴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박정태 옮김), 이학사, 2007, 53쪽.

11)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시대와의 관계에서 철학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첫째, 시대의 흐름에 제동기로서 맞서는 ‘반시대적 고찰’, 둘째, 자신의 시대를 자신의 사고 속에 담아내는 ‘미네르바의 올빼미’, 셋째 ‘은둔의 현자로서의 초연함’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인가? 오늘날 철학은 이 세 가지 길을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시의 적절하게 선택하여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을 자유와 동일시켰으며, 우리의 실천 가운데 나쁜 요소들을 가려 내어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반성이 지닌 힘을 피력했다.<sup>12)</sup> 마찬가지로 철학은 객관적 지식의 성립조건을 탐구하여 과학적 세계관의 정착에도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철학에 대한 오늘날 우리 대학 사회의 시선은 어떠한가? 배척하자니 교양부족이라는 시선이 신경 쓰이고, 수용하자니 철학을 제대로 활용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그래서 ‘창의’와 ‘융합’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산학협력의 모티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경영학 내지 공학 위주의 시스템에서는 철학에게 부여되는 역할은 (교양학부가 담당하는) 기초소양 함양 정도의 보조역할일 것이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으로 철학을 무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사람들이 철학 텍스트는 어렵다거나 철학이 무슨 학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물론 많은 철학 텍스트들이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것도, 철학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의와 주제들 중 무엇을 대표로 내세울지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중심적 가치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철학을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철학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에서 제기되는 일반적 기대와 요구를 고려하면 이것을 단순히 무지한 대중들이 제기하는 ‘강단철학 밖’의 문제로만 간주할 수 없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하고 언급하는데도 정작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는 혹은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의 철학’이 없다는 것은 시대와 치열하게 대결하는 철학정신이 부족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

12) 사이먼 블랙번, 『생각Think』(고현범 옮김), 이소출판사, 2003, 27쪽 아래.

“진실한 나신(裸身)의 여신”<sup>13)</sup>으로서의 철학은 그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태생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경향성을 드러내는 ‘폭로의 심리학’이자, 지배 권력의 모순을 추적하는 ‘의심(불신)의 해석학’이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sup>14)</sup> 그런데 철학이 시대의 통념과 치열하게 대결했던 그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보신을 위해 안주하려는 순간 철학에 대한 세상의 의심(불신)이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관건은 ‘시대적 현실’을 철학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Primum vivere, deinde philosophari”라는 원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것은 먼저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다는 것, 즉 삶이 철학과 사유의 토대라는 것을 의미한다.<sup>15)</sup> 오늘날 철학은 삶(세계)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이론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론화의 경쟁은 전문화로 귀결된다. 이미 니체는 학자들이 “가까운 것을 예리하게 통찰하는 능력”, 즉 전문가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먼 것과 보편적인 것에 대한 근시안과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했다.<sup>16)</sup> 즉 학자들에게 결여된 것은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앞으로도 (철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적 철학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화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래 전 영국의 문필가이자 물리학자인 스노우(C. P. Snow)경이 우려했던 과학문화와 인문문화 사이의 ‘두 문화의 괴리’가 이제 전문화된 철학과, 삶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철학 이야기사이에도 뚜렷이

13) 프리드리히 니체, 『반시대적 고찰』(이진우 옮김), 책세상, 2005, 328쪽.

14) 폴 리쾨르 (Paul Ricoeur)는 이러한 의심의 해석학의 대가로 니체, 마르크스 그리고 프로이트를 들고 있다.

15) 이런 관점은 현대 철학에서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에 반대하여 주로 생철학이나 실존철학에서[(‘Vivo ergo sum’(니체) 혹은 ‘Cogito quia vivo(이 가세트)] 제기된다.

16) 프리드리히 니체, 위의 책, 458쪽 아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사회에서 강단철학은 외면당하는 반면 통속적인 삶의 기에는 환영받는 이유일 수도 있다. 어쩌면 철학은 미래에 ‘문화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할지도 모른다. 철학의 미래는 과학을 추종하는 전문화보다는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는 노력과 성과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고전에 기초한 인문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철학의 전공 및 교양교육이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 바보’(Fachidiot)를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아무런 현실적 설득력과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제 새로운 교육콘텐츠와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험난하지만 가야 할 길과, 익숙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별해야 한다. 잘못 ‘길들여진’ (철학)정신은 성찰과 비판의 노력을 외면한다. 그럼에도 이 정신은 마치 모든 철학을 꿰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그래서 ‘철학의 과잉’은 ‘철학의 부재’만큼 위험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식의 쓰레기”나 “삶이 되지 않는 교훈”으로서의 풍부한 ‘철학적 교양’(Philosophische Bildung)이 아니라, 영혼을 각성시키며 돌보는 ‘철학을 통한 도야’(Bildung durch Philosophie)이다.<sup>17)</sup> 비록 이 길이 고통스럽고 지루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밟고 지나가는 ‘우회로’가 정도(正道)이다.

#### 4. 우리의 현실과 과제

노직(R. Nozick)은 음미(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한다. 세상사람

---

17) 같은 책, 327쪽 참조.

모두가 성찰적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이다. 그러나 노직은 깊이 있는 사고를 앞세워 삶을 이끌 때, 우리는 남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며, 이런 의미에서 성찰되지 않은 삶은 충분하지 않다고 조언한다.<sup>18)</sup> 그러므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철학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철학이 아니며, 심지어 푸코(M. Foucault)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담론)도 우리의 삶은 아니다. 우리 개인이 실행하고 성취하는 “삶의 시간은 임의적으로 응축되지 않는 성숙의 시간”이다.<sup>19)</sup>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철학적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삶을 위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하이데거(M. Heidegger)에 따르면 이해는 우리의 상황에, 그리고 우리가 답하기 원하는 물음에 의미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관점을 계승한 가다머(H. -G. Gadamer)는 우리는 모든 이해 속으로 우리 자신을 가져가는데, 이는 이해와 적용(Anwendung)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거나 말하려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가 시대와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놀라거나 불평할 까닭이 없다. 어떤 시점의 특정한 물음에 자극받은 이해는 재생산적일뿐만 아니라, 적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에 그 자체로 생산적 태도이다. 그래서 해석학의 과제는 결국 ‘다르게 이해함’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철학을 시대적·사회적 요구(현실)에 대한 인간 정신(사상)의 적용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적용은 “물음과 답변의 변증법”을 따르면서 시대와 철학

18) 로버트 노직, 『무엇이 가치있는 삶인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김한영 옮김), 김영사, 2014, 11쪽.

19) 페르디난트 쾰만, 위의 책, 170쪽.

사이의 대화를 이끈다.<sup>20)</sup>

그렇다면 수많은 사상들이 우리의 철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상황과 문제, 비전과 가능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야를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체로 확장하여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가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선도적 이념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쉽게 언급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동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위기의 국면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초의 협약가치, 협약코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정의 개념”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답하기 어렵다.<sup>21)</sup> 시민의식의 부재,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투명한 사회,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빠져 독선을 일삼는 집단들, 이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거부의 인간학’이 모든 것을 저항모드로 변환시켰다.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대다수가 합리적 의심과 비판 그리고 승복과 합의의 정신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우리의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동방예의지국(東邦禮義之國)의 전통도, 중국의 정명사상(正名思想)과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이념도, 서양의 합리적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도 모두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한계는 철학의 한계인가 현실의 한계인가?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표현처럼 철학과 현실은 모두 서로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어차피 철학은 수세의 입장

20) 장 그롱댕, 『철학적 해석학 입문』(최성환 옮김), 한울, 2009, 247쪽 아래.

21) 송호근, 「한국사회와 시대정신-우리는 무엇을 잊고 사는가?」, 『철학과 현실』 96(2013/봄), 철학문화연구소, 77쪽 아래.

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그 자체로는 탁월한데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며 제대로 그 뜻을 살리지 못하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형성된 인간의 경향성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철학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사회가 충분히 제공했는지 여부는 관심 밖의 문제이다.<sup>22)</sup>

니체는 강단철학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대체로 “비생산적”이며 안주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둔감하다고 비판하다. 그는 특히 학자들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는데, 학자들은 “한번 우연히 들어선 궤도를 습관적으로 달려가며, 한번 길든 대로 무사상(無思想)에서 비롯된 진리감각(Wahrheitssinn aus Gedankenlosigkeit)을 따른다”고 조롱한다.<sup>23)</sup> 그래서 학자들은 현실감각에 기초한 창조적 작업에 매진하기보다는 대체로 단순히 재생산적인 이론적 작업에 몰두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학자의 이런 경향성이 여전히 인문학 전공교수의 덕목으로 그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 대학 사회에서 인문학 전공교수는 학자라는 신분의 정체성에 대한 양가적 감정(Ambivalenz)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을 전통적 의미에서 ‘선비’의 후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진정 선비정신의 담지자라 말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학문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수들도 열심히 연구업적을 산출하고 있지만 이론과 실천의 조화, 살신성인을 추구했던 선비의

22) 최근(2014.10.22) 한국대학총장협회는 ‘한국사회의 위기와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은 과잉경쟁, 공동체와 도덕성 약화, 국가정체성 약화 등을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꼽았으며, 철학 등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런 주장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항상 되풀이 되는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23) 프리드리히 니체, 위의 책, 458쪽

삶을 보여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오래 전에 이미 베버(M. Weber)는 대학에서 교수에게 교사(Lehrer)가 아니라 삶의 지도자(Führer)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며, 더욱 우려할만한 것은 “강의실에서 지도자인 채하는 것이 각각의 대학교수에게 방임되어 있는 경우”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교수는 첫째,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계산을 통해 지배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의 전수, 둘째, 사고의 방법, 도구 및 이를 위한 훈련의 제공, 셋째, (실천적인 삶을 위한 구체적 방향제시가 아니라) 목표와 수단을 선택할 때 명확함(Klarheit)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에 자신의 과제가 국한된다. 한 눈 팔지 않고 이러한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교수만이 소위 ‘인격’을 가진다고 한다.<sup>24)</sup>

그러나 대학교수의 본분에 대한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전공교수가 과연 사회적 역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의미 일반을 성찰하며, 인간의 역사와 현재를 해명하며 나아갈 길을 앞당겨 보여주는 해석의 학문이다. 인문학은 삶의 역사를 반성하고 그에 따라 성찰된 미래를 현재화하는 학문이다.<sup>25)</sup> 그러므로 성찰은 이론적 검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구현을 지향한다.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은 인간 실존의 물음과 더불어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지’라는 어렵풋한 기억을 되살리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했고 인간과 세상을 알고자 갈망했으며, ‘인간다움’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과거를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철학의 고전 속에서

24)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1999, 45~46쪽, 23쪽 참조

25) 신승환, 「인문학의 현재와 새로움을 위하여」, <프레스바이플>, 2012.10.10

우리를 인도할 삶의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밤늦은 시각까지 시대와 사회에서의 철학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던 때론 우울한, 때론 행복한 시절도 있었다, 당연히 여기에 디오니소스적 분위기도 빠지지 않았다. 그때는 아마 모두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召命, Beruf)으로서의 철학을 머리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현재의 우리에게로 시선을 옮기면 학교의 요구에 맞추어 대충 논문을 쓰고,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연히 철학적 관심보다는 세속적 관심이 우리를 더 추동하고 있다. ‘과거의 초심’과 ‘현재의 처세’사이에는 아마도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왈쩌(M. Walzer)는 개인이 공동생활에 참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책임이 있을 때, 보다 강하며, 보다 자신감이 있으며, 보다 이해력이 있다고 주장한다.<sup>26)</sup> 이를 통해 다양화와 개인화 속에서도 “차이의 병합”이 이루어지며, “타자성을 통해 시야를 확장”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sup>27)</sup> 이런 배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동체와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철학의 ‘연대’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 5. 철학의 연대와 철학의 문화

개인과 공동체의 생산적 관계는 문화철학의 관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비록 탁월한 정신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삶의 공동체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진가가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 이때 평가는 이

26) 마이클 왈쩌, 『관용에 대하여. 야만이 아니라 문명의 방식을 답하라』(송재우 옮김), 미토, 2004, 190쪽 아래.

27) 라이너 홀,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최성환 옮김), 한울, 2008, 192쪽.

론적으로는 학문 공동체의 비판과 인정을 통해, 실천적으로는 삶의 공동체의 수용과 거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짐멜은 예술, 종교 및 철학의 영역에서의 정신적 능력이 비록 최고도의 발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의 성취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지 이러한 발전의 성과가 밖으로 표출되어 객관문화를 형성하고, 이것이 주관문화와 결합될 때만 문화가치가 형성, 구현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객관문화를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문화화(文化化)는 더욱 심도있게 진행된다. 짐멜은 문화를 “영혼이 [긴 우회로를 통해] 자신에게 이르는 길”로 정의하면서 삶과 (문화)형식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한다.<sup>28)</sup> 이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철학(정신)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철학의 문화화는 이 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대를 필요로 한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철학과 교수들의 개인적인 전문 연구에 몰두하는 경향때문에 철학의 문화화 그리고 사회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혹은 소홀히 했던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철학의 문화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연대의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철학과 내부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학문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예를 들면 고전강독과 시민강좌를 학교와 지역공동체와 연계해서 개최할 수 있다. 다양한 수준의 강좌와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인문학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 특히 직업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동문네트워크가 이런 강좌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방도 중 하나이다. 이는 동문들이 강좌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28) G. 짐멜, 위의 책, 69쪽.

현실 속에서의 철학의 한계를 가장 잘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대를 통해 이른바 쌍방향적 피드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역사학과와 독문학과가 그러듯이 전국의 많은 학과들은 학문적 수준과 대중친화적 콘텐츠를 겸비한 고전강독과 콜로키움을 지속적으로 제공·개최하고 있으며, 몇몇 대학이 보여준 시민강좌의 성공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학문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추진해 온 사실은 우리의 방향설정에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박이문은 인문학(철학)의 과제로 “급변하는 지적·이념적·사회적·역사적 현실에 맞추어 여러 다른 학문과 연계할 수 있는 연구 및 보완을 통해 새로운 인문학(철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일관성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sup>29)</sup>을 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교내외에서 전방위적 감지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언론의 기고 활동 등을 통한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의미, 교육인프라 그리고 교양교육의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대안 제시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학문공동체로서 대학은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기본 과제이지만 ‘좋은’ 삶의 방식(modus vivendi)을 실천하고 매개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배경에서 삶의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축제나 놀이 문화도 한번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체방식을 굳이 대학에서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플라톤의 『향연』(symposium)도 (소크라테스가 대중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떠나온) ‘축하연’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화’에 방점이 있다.

29)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 동지 철학을 향하여』, 知와 사랑, 2010, 27쪽.

(예컨대) 독일에서는 ‘Dies academicus’(Aakademischer Tag, Tag der offenen Tür)라는 이름으로 학술적 축제를 개최하여 외부에 강의나 연구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제 우리 대학사회에서도 ‘통념의 상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공통 감각(sensus communis)을 형성하며, 진정한 향유의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은 평생을 살아갈 관념을 형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유능한 교수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들이 가진 당파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에게 불쾌한(unbequeme) 사실들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sup>30)</sup> 입시지옥을 금방 헤쳐 나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미래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숙성의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낭만과 열정이 청춘의 징표라면, 봉사과 배려는 인간의 징표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상호주관성을 전제로 하는 타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성찰적 소통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공공성을 조화롭게 겸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sup>31)</sup>

이러한 전반적 변화를 새로운 철학 문화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문화는 개개인의 자기 인식의 자식이며, 자신에 대한 불만의 자식”<sup>32)</sup>라고 규정한다. 자기성찰과 자기극복의 산물이 문화라면 우리의 문화는 어떠한가?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끊임없이 반성하고 묻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러셀이 말하는 것처럼 “경험에서

30) 막스 베버, 위의 책, 41쪽.

31) 강수택, 『시민사회연대』, 아르케, 2007, 231쪽.

32) 프리드리히 니체, 위의 책, 446쪽.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종의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sup>33)</sup> 우리 대학사회에서도 ‘통념의 상식’을 파괴하고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통감각(sensus communis)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편견을 허물고,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도적으로(initiativ),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철학적 근본주의’(ein philosophischer Radikalismus)가 요청된다. 이 입장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근본적 원인들을 외면하지 않는 자기성찰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해체’와 ‘극복’이라는 고통의 길을 넘어서 서두에서 언급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게 된다.

## 6. 나오는 말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지금까지의 역사 자체를 평가 절하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긍심도 중요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학의 철학과들은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각 학교의 특성도 존재하지만 인문학 전공 졸업생 일반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에 상응하게 철학과 졸업생들도 대체로 계산을 잘못해도 기만하지 않고, 앞서가지 못해도 술수를 부리지 않으며, 부족해도 나눌 줄 아는,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루소는 인간의 본래적 허약성에 대한 배움을 그의 교육 이론 전체에서 핵심으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이 허약성을 인지하는 것만이 상호 의존과 상호 도움의 필요성을 통해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고 인간다움의 가치로 향하게”

---

33) 버트란트 러셀, 『인간과 그 밖의 것들』(송은경 옮김), 오늘의 책, 2005, 50쪽

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부적합성’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공동체 다운 공동체에 대한 희망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무한 경쟁 속에서 모두가 완벽함, 강함, 지배야말로 성공한 삶의 핵심 요소라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시대에 어찌면 많은 시행착오와 우회로를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해안인지도 모른다.<sup>34)</sup> 앞으로도 우리 철학과 졸업생들이 ‘분수를 지키는 삶’, ‘어울리는 삶’, ‘절제된 언어’ 그리고 ‘교감하는 삶’이라는 ‘상식의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sup>35)</sup> 그것이 바로 우리 철학정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철학이 인간의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는 ‘데몬’(Dämon)을 찾아서”<sup>36)</sup> 행복한 삶의 길을 찾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34) 마사 누스바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우석영 옮김), 궁리, 2011, 73쪽 아래. 루소가 프랑스 귀족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누스바움은 수많은 사회들은 루소 시대의 프랑스 귀족들이 배웠던 ‘아독한 것’을 가르친다고 항변한다.

35) 줄고, 상식(常識)의 정의를 위한 시론, 『해석학연구』, 31집, 한국해석학회, 2013, 199쪽 아래 참조.

36) 막스 베버, 위의 책, 58쪽.

## 참고문헌

- 사이먼 블랙번, 『생각Think』(고현범 옮김), 이소출판사, 2003,  
이브 카탕, 『철학에 입문하기』(박선주 옮김), 동문선, 2003.  
페르디난트 펠만, 『행복의 철학사』(최성환 옮김), 시와 진실, 2012.  
오르테카 이 가세트, 『대중의 반역』(사회사상연구회 옮김), 한마음사,  
1995.  
장 그롱댕, 『철학적 해석학 입문』(최성환 옮김), 한울, 2009.  
로버트 노직, 『무엇이 가치있는 삶인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  
(김한영 옮김), 김영사, 2014.  
마사 누스바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우석  
영 옮김), 궁리, 2011.  
버트란트 러셀, 『인간과 그 밖의 것들』(송은경 옮김), 오늘의 책,  
2005.  
장 폴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박정태 옮김), 이학사, 2007.  
G. 짐멜,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김덕영·배정희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마이클 왈쩌, 『관용에 대하여. 야만이 아니라 문명의 방식을 답하라』  
(송재우 옮김), 미토, 2004.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1999.  
라이너 홀,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최성환 옮김), 한울, 2008,  
H. Schnädelbach, Kritik der Kompensationstheorie, in: *Kursbuch 91,*  
*Wozu noch Geisteswissenschaften?*, Berlin, 1988.  
강수택, 『시민사회연대』, 아르케, 2007.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 동지 철학을 향하여』, 知와 사랑, 2010.

철학탐구 제37집

송호근, 「한국사회와 시대정신-우리는 무엇을 잊고 사는가?」, 『철학과 현실』 96(2013/봄), 철학문화연구소.

최성환, 「상식(常識)의 정의를 위한 시론」, 『해석학연구』, 31집(2013), 한국해석학회.

## **The Roles and the Tasks of Philosophy in Contemporary Korea**

-Between the Spirit of Philosophy and the Sprit of Time

Choi, Sung-Hwan (Chung-Ang Univ.)

This passage is to diagnose what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in university faces nowadays in our country and to prospect upcoming future. It is an obligation for university to active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and the society and thus to create a novel academic culture. However, apparent is a prejudice against the mission and the justification of existence for academic learning and the university. Therefore, more objective perspective is demanded to diagnose the current location where the philosophy discipline is situated and to establish a long and short-term assignment within introspective position. Nonetheless, it is undeniable reality such social and periodic demand for a change of philosophy exists. From now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capability and also theoretical and practical exertion of the philosophy department must be performed as a very significant tool to make lives valuable and get on such situation of the day. Then the philosophy can contribute to the society and the humanity. Only with this, 'our philosophy' can be presented in an authentic way. In such background, this passage suggests new formation of the academic culture based on 'sensus communis' which would devastates 'the conventional sense', and 'the philosophical fundamentalism' proceeding to our way thoroughly not the following stance.

철학탐구 제37집

Key words: the sprit of philosophy, the sprit of time, academical  
philosophy, Bildung, philosophical culture

최성환 e-mail: shchoi@cau.ac.kr

투 고 일	2015년 01월 15일
심 사 일	2015년 02월 03일
게재확정	2015년 02월 18일